

# Map on the Clothes

언뜻 보면 지도를 프린트한 작은 원피스와 셔츠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밀하게 접힌 종이라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옷장을 나와 캔버스 안으로 들어온 그녀의 종이옷.  
 갤러리배에서 첫 한국 개인전을 여는 엘리자베스 르코트의 작품을 만나보자.

에디터 신숙미(ssmi@noblesse.com)



작품을 거는 엘리자베스 르코트



- 1 샌프란시스코 초기 모습을 담은 지도로 만든 옷
- 2 'Petite Soupe, Bijou et Macramé'
- 3 'Des Mouffles'
- 4 'Petit Coquillage Rose et Pierre Bonheur'



엘리자베스 르코트(Elisabeth Lecourt)는 런던을 무대로 활동하는 프랑스 출신 작가다. 'Les Robes Géographiques', '지도로 만든 드레스'라는 뜻의 시리즈가 그녀의 주요 작품. 최근 열린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기획전을 통해 한국 관객들을 만난 그녀가 갤러리배에서 한국 첫 개인전을 연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작가지만 그녀는 런던과 파리,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등에서 몇 차례 개인전을 열고 중국과 미국의 아트 페어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작품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녀는 오래된 고지도를 접어 아이의 옷을 만든다. 옷을 장식한 작은 리본도, 귀여운 세일러 칼라도 모두 지도로 만든다. 마치 실제 옷처럼 그녀의 이름을 딴 브랜드 태그도 달려 있다. 종이 지도 대신 손 안의 작은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는 시대, 구시대의 유물인 낡은 지도가 작고 귀여운 소녀의 드레스가 되고, 남자아이의 셔츠로 변모한 것에 갤러리배 배미에 관장은 매력을 느꼈다. "제가 지리학을 전공해서 지도의 변신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지도는 사람에게 '길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아이의 옷을 만드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옷이 아이의 지역적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작가가 말하는 작품의 의미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저에게 지도는 감정과 기분 그리고 이야기의 종합적 청사진과 같아요. 길은 사람으로 치면 도시의 정맥과 같고, 사람이 움직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죠."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는 옷은 한 개인의 주거지와 정체성을 상징한다. "나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옷과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처음 지도로 옷을 만든 것은 아주 어린 시절로 기억해요.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범죄를 저지른 아빠가 여섯 살 어린 딸을 남겨두고 감옥에 갔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제 사촌이 런던 지도를 제 책상 위에 두고 갔는데, 그걸로 작은 드레스를 만들었어요. 그 남자가 갇힌 감옥이 있는 부분을 여자아이의 심장에 오도록 했죠. 정확한 이유는 저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 아이가 아빠를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지도는 매우 사실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많은 것을 상징으로 내포한 사물이다. 식민지 개척이 활발하던 14~17세기의 지도는 자신이 속한 나라를 크게, 그리고 식민지의 크기를 작게 그리는 등 왜곡도 심했다. 권력의 힘이 무엇보다 사실적이어야 할 지도에 투영돼 나타난 셈. 영국의 유명한 개척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지도는 세계를 돌며 강과 산을 도표화한 비교적 정확한 지도지만, 왜곡된 정보도 분명 있다. 그녀는 고지도의 이런 불확실함에 매료되기도 했노라 고백한다. 또 프랑스에서 태어나 런던의 킹스턴 대학과 영국 왕립 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를 졸업한 후 런던에 정착한 그녀의 경험 역시 지역적 정체성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갤러리배의 화이트 큐브에 걸린 작은 드레스와 셔츠에서 당신이 발견할 의미는 무엇일까. ◇